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오부제의 문제를 고찰하는 속에서 따져 보아야 할 과제인데, 일단 본고는 오족의 고찰에서 그치고 餘論은 훗날을 기약하고자 한다.

[투고일: 2021.12.01,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 今西龍, 1926, 「高句麗五族五部考」, 『史林』6-3.
——, 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金澤庄三郎, 1929, 『日鮮同祖論』, 刀江書院.
那珂通世, 1915, 「朝鮮古史考」, 『史學雜誌』5, 『那珂通世遺書』.
渡部薰太郎, 1935, 『女眞語の新研究』, 大阪東洋學會.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25-4.
小倉進平, 1929, 『郷歌及史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羽田亨 編, 1937, 『滿和辭典』, 京都帝國大學滿蒙調査會.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1951, 『滿鮮史研究, 上世篇』).
坪井九馬三, 1927, 『我が國民國語の嚆』, 京文社.
- A. A. Goldenweiser, 1922, Early Civilization, Alfred A. Knopf.
S. M. Shirokogoroff, 1929, Social Organization of the Northern-Tungus.
——, 1935, Psychomental Complex of the Tungus, Glossary.

번역논문

華夷思想의 여러 양상*

譯 김효진**

- I. 머리말
- II.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華夷思想」
- III. 日本의 「華夷思想」
- IV. 베트남의 「華夷思想」
- V. 맺음말

I. 머리말

미국의 사회학자 W.G 섬너는 習俗(folkways) 연구에서 「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라는 기초 개념을 말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각 집단은 스스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통해 우월을 과시하고, 그 神性を 賞揚하여 타자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 즉 자신의 습속을 유일 올바르게 여기고, 만일 다른 집단의 습속을 발견할 때는 거기에 대한 멸시의 감정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섬너는 민족중심주의의 實例로 유대인·그리스도인·로마인·중국인 등이 자민족 우월성을 주

* 이 글은 酒寄雅志, 2001, 「華夷思想の諸相」,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435~472쪽(原著: 1993, 「華夷思想の諸相」,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5 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學出版會)을 번역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장한다고 언급하였다.¹⁾

중국인이 형성한 華夷思想²⁾은 春秋·戰國期부터 清朝에 이르는 역대 왕조로 계승되었다. 중국 국내에는 주변 여러 국가·민족을 규제하는 국제 질서의 근간이었다. 화이사상은 夏·殷·周가 있었던 중국 하남성 지방을 천하의 중앙으로 생각하고, 이곳을 문화가 우수한 「화려[華やか]」한 땅으로 인식, 「中華」 「華夏」라고 칭하였다. 이 「中華」 「華夏」를 하늘의 大命을 받은 天子가 「德」으로써 지배하고, 「禮」와 「法」을 부여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여기에 對置하여, 천자의 「德」 「禮」 「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蠻·夷·戎·狄, 즉 「四夷」로 준별하고 「中華」 天子의 威儀가 미치는 極端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華夷思想」은 「夷」를 「夷」로써 배제하는 것이 아닌, 「夷」를 「華」로 변화시켜 포섭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천하는 확대하면서 민족의식도 고양되었다. 이를 통해 거만한 差別觀과 대외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四夷」의 수장은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권위를 뒷받침하고, 자신의 지배에 원용하였다. 이들의 對중국 관계는 「朝貢」(貢納)이다. 중화의 천자는 조공해 온 「四夷」의 수장에게 王號·爵位 등을 주어 책봉하고, 그 질서 속에 포섭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

말하자면 「中華」와 「四夷」의 관계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중심이 주변을 규정하지 않는다. 즉 주변이 중

1) 青柳清孝·園田恭一·山本英治 譯, 1975, 『フォークウェイズ』(現代社會學體系 第3), 青木書店.

2) 중국의 華夷思想에 대해서는, 那波利貞, 1936, 「中華思想」, 『岩波東洋思潮講座』, 岩波書店; 小倉芳彦, 1970, 「裔夷の俘 - 『左傳』의 華夷觀念 -」,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同, 「華夷思想의 形成」(前掲書); 栗原朋信, 1960, 「文獻にあらわれたる 秦漢璽印の研究」, 『秦漢史の研究』, 吉川弘文館; 同, 1978, 「漢帝國と周邊諸民族」,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 吉川弘文館; 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と日本史」,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등이 主論稿이다.

심의 영향을 선택적으로 받고, 동시에 中華觀을 공유하였다. 주변은 「小帝國」, 中華化를 만들어 내고, 각자의 국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³⁾

본문에서는 古代 韓半島의 여러 나라, 동북아시아에서 첫 국가로 탄생한 발해, 「東夷의 小帝國」으로 불렸던 日本(倭), 나아가 「南方의 中華帝國」인 베트남의 「華夷思想」 성립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華夷思想」

1. 高句麗의 「華夷思想」

압록강 지류인 渾江 유역의 桓仁에서 일어난 고구려는 3세기 초 集安으로 옮기고, 적극적인 영역 지배를 전개하였다. 『三國志』 卷30 魏書 高句麗傳의 「國人有氣力, 習戰鬥. 沃沮·東濊, 皆屬焉」을 통해, 한반도 동해안의 옥저와 동예를 복속 지배했음을 알 수 있다. 또 313년 중국의 동방 경영 거점인 낙랑군을, 翌年에는 대방군을 멸망시켰다. 廣開土王代(391~412)로 되면, 한층 영역을 확대하였다. 遼河 중류에서 유목하고 있던 契丹 부족인 稗麗와 동북의 肅慎을 토벌하였다. 또 남쪽 경계는 백제와의 전투를 통해 한강 유역까지 이르게 된다.

『廣開土王碑』(414년 立碑)에 따르면, 高句麗土境 고유의 舊民을 통치하는 고구려 태왕을 중심으로, 그 밖에 안정적인 예속 관계로써 조공=속민 형태가 있고, 다시 그 外緣에는 불안정한 형태로 跪王(奴客)·歸王 등과 예속 관계를 구축하였다. 고구려는 특정 세력을 자국의 세력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고구려 태왕의 德化를 「恩澤洽于皇天」 「太王恩赦先迷之愆」 「王恩普覆」 등으로 표현하였다. 광개토왕의 높은 은덕과 그 은덕을 입은 味仇婁鴨盧 등 5鴨盧의 사례와 같

3) 濱下武志, 1989, 「東アジア國際體系」, 『講座國際政治 1』, 東京大學出版會.

이 「慕化隨官來」 하는 자도 있음을 드러내면서, 고구려 세력권의 유지·신장을 도모하였다. 결국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고구려는 對조공국, 즉 對跪王(노객)·歸王 등의 高句麗的 「華夷思想」에 근거한 서열화를 진전시키고 있었다.⁴⁾

한편 1935년 중국 길림성 集安에서 발굴된 『牟頭婁墓誌』가 주목된다. 이 묘지를 통해 牟頭婁는 5세기 전반인 長壽王代에 사망한 인물이며, 廣開土王代에는 北扶餘를 지배한 지방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묘지에서는 「天下四方」과 같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엿보인다. 또 이 묘지의 건국 신화에서 鄒牟王이 河伯(河神)의 외孫, 日月之子라는 천지 쌍방의 혈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牟頭婁墓誌』는 天과 河(地)를 존송하는 고구려 고유 사상에 중국 古來의 「天下」 사상을 도입하여, 고구려 독자의 천하관을 형성한 것이다.⁵⁾

이러한 천하관은 광개토왕의 유지를 이은 장수왕으로 계승되었다. 이때 고구려의 천하는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통해 확대되어 갔다. 5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中原碑』⁶⁾는 고구려가 竹嶺을 넘어 新羅嶺으로 침공한 기념비이다. 비문에는 新羅王을 일컬어 「東夷之寐錦」으로 기록하고, 분명히 고구려를 「中華」, 신라를 「東夷」로 위치하는 「華夷思想」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또 비문의 첫머리에는 「如兄如弟」 「上下相和」라고 하여, 고구려와 신라를 느슨하면서도 대등에 가까운 관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賜寐錦之衣服」 「新羅土內幢主」라고 하듯이, 「新羅寐錦」=新羅王에게 고구려 관위제와 관련된 의복을 賜授하고, 신라 영토 내에 軍官인 幢主를

4) 武田幸男, 1989, 「高句麗勢力圈の展開過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5)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武田 注(4) 前掲書).

6) ‘木村誠, 1997, 「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検討」,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에 따르면, 中原高句麗碑의 「太子」라는 존재에 주목하고 同碑는 지금까지 말한 長壽王代가 아닌 廣開土王代의 立碑라고 한다.

과견하는 구체적 지배를 실행하고 있었다.⁷⁾ 게다가 「上下相和」한 고구려와 신라는 함께 「守天」하고 있다. 당연히 이 「天」은 『牟頭婁墓誌』에 보이는 「天」과도 같은, 고구려 독자의 「天」이다. 그리고 신라가 이 「天」을 지킨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신라가 고구려의 「天」아래에 포섭된다는 뜻이다. 즉 신라는 고구려의 복속 아래에 들어가 있었다.

고구려의 우위는 1926년 慶州 新羅王墓級인 瑞鳳冢 출토 『延壽元年銘銀合杆』⁸⁾에서도 엿보인다. 이 「延壽元年」이라는 年紀銘은 대부분 장수왕 39(451)년으로 보고 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하여 「延壽」로 改元하고, 고구려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신라 訥祗王에게 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는 그 이전부터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廣開土王碑』와 『德興里壁畫古墳墓誌』의 「永樂」, 『高句麗·金銅如來立像』의 「延嘉七年歲在己未」⁹⁾, 『中原高句麗碑』에서는 「建興」이라는 연호가 확인된다. 대체로 元號는 천자가 민중에 대한 시간의 지배를 상징한다. 즉 원호를 통해 고구려는 군주의 至上 권위를 체현하고, 永樂太王 혹은 장수왕의 신성한 주권을 선양했던 것이다.

광개토왕-장수왕대 고구려는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高句麗的 「華夷思想」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413년 장수왕은 長史 高翼을 東晉에 보내 조공하여,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으로 책봉되었다. 422년 東晉을 이은 宋에도 遣使하여 「散騎常侍·(都)督平州諸軍事」를 加授받았다.¹⁰⁾ 이 사실은 고구려가

7) 武田幸男, 1980,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8)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研究の現状と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龍溪書舍.

9) 田中 注8 前掲論文.

10) 중국이 異民族 君長에게 수여한 관호는 魏·晉代까지 중국 왕조로의 慕化를 드러낸 「親魏倭王」 「晉烏丸歸義侯」 등의 외신 특유의 관작이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南北朝 시대로 되면, 주변 여러 국가의 수장에 대해 都督·將軍·刺史·太守와 같은 군사권과 행정권을 나타내는 칭호와 함께, 本國王을 합쳐 중국의 지명에 유래하는 작호가 수여되었다.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 등도 수여받았고, 중국 국내에 사용하는 관작이 주

중국의 책봉 체제 속으로 參入한 것을 나타내는데, 책봉 체제를 통해 중국의 초월성에 귀속하는 행위이다. 고구려는 이를 바탕으로 동부여 · 숙신 · 신라 · 백제에 군림하고, 나아가 倭와의 대항 관계를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¹⁾

고구려의 「華夷思想」 확립 시기는 大對廬를 비롯한 13등 관위제가 제정되고, 국가 체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때와 비슷하다. 이를 감안하면, 고구려의 「華夷思想」은 국내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국내적 질서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치 사상이었다. 그러한 형태로 고대 한반도 국가 중 가장 빨리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2. 百濟의 「華夷思想」

백제는 『三國志』 卷30 魏書 韓傳에 따르면, 3세기에는 馬韓 50여국의 一小國 「伯濟」에 지나지 않았다. 4세기에 한강 유역의 小國을 통합하고 百濟를 칭했지만, 330년 무렵 樂浪 · 帶方郡을 지배 아래에 둔 고구려에 의해 신라와 함께 「屬民」으로 되어 조공하였다.

近肖古王代(346~75년) 고구려의 틀에서 벗어나, 369·371년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371년 평양성을 함락하고, 아울러 王都 慰禮城(서울 몽촌토성)을 확대 · 정비하였다.¹²⁾ 백제는 對高句麗戰에 倭의 원조를 끌어들이고, 또 승리를 계기로 東晉에 조공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근초고왕(餘句)은 鎮東將軍 · 領樂浪太守라는 칭호를 통해 중국의 책봉을 받았다.

번 이민족의 군장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됐다고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金子修一, 1992, 「中國皇帝と周邊諸國の秩序」, 『新版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堀敏一, 1997, 「中華世界」, 『魏晉南北朝隋唐時代の基本問題』, 汲古書院 등을 참조바란다.

11) 武田幸男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武田 注4 前掲書).

12) 『三國史記』 卷第24 近肖古王 26년조에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라고 하여, 慰禮城에서 漢城으로 천도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廣開土王碑』에 의하면, 396(永樂 6)년에 百殘(濟)王인 阿華王(阿花王)은 「奴客」으로써 고구려 태왕에 跪하고 그 세력권으로 귀속하였다. 반대로 翌년에는 倭와의 和通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고구려 세력권에서의 이탈을 시도하면서 이후 對立하게 되었다.

475(文周王 元)年 고구려의 남진으로 백제는 어쩔 수 없이 漢城에서 熊津(충청남도 공주)으로 南遷하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는 한반도 남부로의 영역 확대를 시도하였다. 476년 耽羅(濟州島)가 方物을 올리고 백제에 신중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아직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백제는 東城王이 親征을 시도하였다. 결국 탐라는 「耽羅聞之, 遣使乞罪」(『三國史記』 卷第26 東城王 20年條)라는 형태로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신중하게 된다. 뒤에 언급할 『梁職貢圖』에 「下枕羅等附之(百濟)」라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동성왕은 490년과 495년 南齊에 견사하고, 그의 신하와 사절들에게 王·侯 수작을 요구하였다.¹³⁾

그 뒤 武寧王代(501~23년) 한층 적극적 외교 정책을 전개하였다. 512년 무렵까지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를 영유하여 전라남도 전역을 지배하고, 東進하여 가야 지역으로 공세를 펼쳤다. 513년 己汶(南原)을 공격하고, 다시 섬진강을 내려가 滯沙(河東郡)로 진출하여 522년에 확보하였다. 531년 安羅(함안)에 進駐하였다. 백제는 이들 지역에 郡令·城主를 두어 통치하였다.¹⁴⁾ 이러한 상황 속에 521년 백제는 梁으로 입조하였다. 그 당시의 보고로 생각되는 『梁職貢圖』 百濟使圖에는, 「傍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巳(己)文·下枕羅等附之」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이 현실의 한반도 정세를 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백제가 신라(사라)를 비롯한 가야의 여러 국가에 대해 부용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간과할

13) 坂元義種, 1978, 『百濟史の研究』, 塙書房; 同, 1978,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4) 田中俊明, 1990, 「于勒十二曲と大伽倻連盟」, 『東洋史研究』 48-4; 同, 「加耶をめぐる國際環境」(金子 注10 前掲書); 同, 1992, 『大伽倻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残った-』, 吉川弘文館.

수 없다.¹⁵⁾ 이는 『日本書紀』 欽明 14(553)년 7월조의 聖明王 상표문에서 왕이 가야의 여러 국가를 백제의 「蕃」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된다. 이 기사는 『日本書紀』의 윤색으로 볼 수 있지만, 백제 내부의 사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백제가 스스로 「中華」로 인식하고 가야의 여러 국가를 「蕃」國으로 위치하는, 이른바 百濟的 「華夷思想」이 6세기 중반 무렵까지는 성립했다고 말할 수 있다.

5세기 말부터 6세기에 걸쳐 백제는 「華夷思想」을 형성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압박으로 남하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편입하는 과정, 즉 현실의 대외 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백제는 왕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편제하고, 佐平을 중심으로 한 16등 관위제 정비, 아울러 內官 12부, 外官 10부로 이루어진 22부제 성립 등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다. 「華夷思想」은 국가 형성의 한 요소로 기능한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적극적인 대외 진출로 백제가 정비해 온 국가 체제는 위협받게 된다. 백제 주변에서 신종의 禮를 취했던 세력이 신라로 편입되어 「華夷思想」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즉 신라는 522년 대가야와 혼인 관계를 맺고, 南加耶(金官國, 경상남도 김해)·탁기탄(경상남도 경산)을 침공하였다. 나아가 532년 금관국을 병합하고, 마침내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10여 국가도 지배 아래에 넣게 된다. 여기서 가야의 여러 국가를 「蕃」으로 인식한 백제의 「華夷思想」은 일찍부터 그 實態를 잃게 된 것이다.

3. 新羅의 「華夷思想」

『三國志』 魏書 韓傳에 따르면, 3세기 무렵 辰韓 지역은 12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중 경주를 근거지로 한 斯盧國이 대두하고, 4세기 후반에는 각지 수장층(干支層)과의 연합을 강하게 하였다. 그러

15) 李成市, 1992, 「古代朝鮮半島の漢字事情と日本 -六世紀初頭の新羅を中心に-」, 『しにか』 3-9.

나 남하한 고구려 앞에 신라는 「屬民」(『廣開土王碑』)으로, 고구려 태왕의 德化가 미치는 지역으로 편성되었다.

고구려·백제에 비해 국가 형성이 늦은 신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6세기이다. 智證王代(500~14년) 국호를 정식으로 「新羅」로 하고, 왕호를 「尼師今」 「麻立干」에서 「王」으로 전환하였다. 또 法興王代(514~40년) 兵部 창설, 율령 반포, 의관제 성립 등 신라 왕권의 성장·자립을 알 수 있다.

1989년 발견된 『迎日冷水里碑』(503년 立碑)에는 「至都盧葛文王(智證王)과 「王」號의 사용이 확인된다. 또 1988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에서 발견된 『蔚珍鳳坪碑』(524년 立碑)에는 고구려의 동해안 영내로 신라가 침공하고, 舊高句麗民을 징발하여 울진 부근의 「法道」 정비·보전을 진행하는, 신라의 高句麗領 지배 침투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¹⁶⁾ 牟卽智寐錦王(法興王) 등이 舊고구려민에게 왕명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라의 官人에 의한 殺牛를 행하고, 「罪□天」이라고 하여 天에 서약하고 있다. 이 「天」은 신라 독자 「天」의 표명이다. 舊고구려민은 종래 속해 있던 고구려의 「天」에서 신라의 「天」으로 왕명 준수를 맹서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眞興王代(540~76년) 한층 적극적인 영역 확대 정책을 전개하고, 가야는 물론 백제의 동북부·고구려령으로 침공하였다. 1978년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발견된 545년 건립으로 이해되는 『丹陽赤城碑』에 의하면, 竹嶺을 넘어 赤城을 탈취한 진흥왕은 新住民에게 外位 수여·적성의 守備役 면제 등 다양한 恩典을 주고 있다. 여기서 영역 확대에 동반된 領民化와 함께 신라 대왕의 덕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식이 보인다.¹⁷⁾ 게다가 진흥왕이 利原(磨雲嶺碑 568년)을 비롯하여, 咸

16) 李成市, 1989, 「蔚珍鳳坪新羅碑의基礎的研究」, 『史學雜誌』 98-6(1998, 『古代東아시아의民族と國家』, 岩波書店); 木村誠, 「朝鮮における古代國家の形成」(金子 注10 前掲書); 鈴木英夫, 1989, 「最近發見の韓國の古代四碑について」, 『國史學』 139.

17)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朝鮮學會; 濱田耕策, 1978, 「新たに發見された『丹陽·新羅赤城碑』」,

興(黃草嶺碑 568년)·北漢山(北漢山碑 568년 전후)에 세운 『管境巡狩碑』는 공통으로,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라는 문장이 있다. 이는 영역 확대와 동시에, 隣國 즉 백제·고구려와 화친을 맺게 되어 왕의 덕화가 두루 미치지 못했다는 謙辭이다. 한편으로 오히려 신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즉 新羅的 「華夷思想」에 근거하여 확대된 영역을 지배한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들 碑에는 「帝王建號」와 「朕」 등이 라는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신라 왕권이 중국적 왕권을 지향했음은 분명하다.¹⁸⁾ 이때는 신라가 금관국을 복속하고(532년), 대가야(高靈)를 중심으로 한 가야를 병합한 시점(562년)이기도 하다.

7세기 신라는 대외적으로 고구려·백제와 항쟁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비담의 난(647년)으로 지배 체제가 동요되었다. 이러한 혼란 중 上臣 金春秋와 將軍 金庾信 등은 親唐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倭를 비롯한 주변 국가도 이 구조로 들어려고 하는 신라 본위의 다원적인 외교 질서를 형성해 나갔다.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9년 그동안 백제에 신종해 있던 탐라도 복속하였다.¹⁹⁾ 670년에는 멸망한 고구려의 왕족 安勝을 고구려왕(뒤에 報德國王으로 改封)으로 책립하였다. 또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 말갈인들을 9摺幢에 편입하고, 백제 유민(673년)·고구려 유민(686년)의 본래 관위에 맞게 신라의 그것을 주어 관인 체제로 흡수하였다. 이처럼 7세기 말 신라는 주변 여러 민족·국가를 新羅王民으로 편성하였다. 신라왕은 한반도의 패자로서 지고한 德澤으로 자리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행하려고 한 것이다.

그 중 禮制는 주변 여러 국가와의 긴장 및 내정 혼란을 틈타 권력 집중을 노린 김춘추·김유신에 의해, 7세기 중반 당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신라 국내의 서열화를 진전하는 통치 원리로써 「華夷思想」을

『日本歴史』 365.

18) 木村誠 注16 前掲論文.

19) 森公章, 1986,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 7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 」, 『朝鮮學報』 118(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8세기로 들어가면, 신라는 새롭게 등장한 발해도 번국으로 취급하였다. 9세기 말 최치원이 쓴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初建邑居, 來憑隣援. 其酋長大祚榮, 始受臣蕃第五品大阿餐秩」(『東文選』卷33 表箋)이라고 하여, 발해의 초대왕 대조영에게 신라 관위를 주었다고 하였다.²⁰⁾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8세기 이래 신라의 지배층 사이에는 발해를 번국으로 간주하려는 의식이 존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번국으로 여기는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734년 파견된 新羅遣日本使 金相貞이 자국을 「王城國」으로 칭하여 일본의 불쾌함을 산 사례를 들 수 있다. 「王城國」이란 「신라를 宗主國, 주변 여러 국가를 蕃國으로 여기는 화이사상의 구체적 顯現者인 新羅王이 거주하는 都城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²¹⁾ 또 聖德王의 遺德을 추모하는 취지에서 주조된 神鐘에 「四十餘年, 臨邦勤政, 一無干戈, 驚擾百姓, 所以四方隣國萬里歸賓」(771년. 방점 필자)으로 頌揚하고 있다.²²⁾ 이는 바로 발해와 일본 등 주변 여러 국가를 「蕃」으로 본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753년 정월 唐 朝賀席에서 일본과 신라의 遣唐使가 席次를 다투었다. 그 결과 신라는 일본보다 下位로 내려감으로써 신라의 「華夷思想」은 훼손되었다. 이 석차 다툼 이후, 景德王은 그해 8월 신라로 파견된 일본의 遣新羅使를 무례하다고 하여 알현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의 국제 의식과의 대립으로 비화되어, 759년 일본은 신라 정토를 계획하였다.²³⁾

20) 濱田耕策, 1978,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 吉川弘文館.

21) 濱田耕策, 1983, 「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對日外交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る-」, 『學習院史學』 21.

22) 濱田耕策, 1981, 「新羅の聖德大王神鐘の中代の王室」, 『洵沫集』 3.

23) 酒寄雅志, 1977, 「八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 -渤海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國史學』 103(本書 第二編 第五章에 수록).

이상과 같이 신라의 「華夷思想」은 백제·고구려의 멸망 및 對唐 전쟁을 계기로, 탐라와 보덕국을 복속시킨 7세기 후반에는 충분한 의미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발해 등 고대국가의 체제를 가진 주변 국가에 신라가 번국으로 대우하려고 할 때, 각국이 가지고 있던 「華夷思想」과의 알력이 생겼다. 이는 신라의 「華夷思想」이 현실적 복속에 근거하지 않고, 극히 의제적·관념적이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성덕·경덕왕대(702~65년) 州郡縣 改名, 律令博士 설치, 官號 改易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해, 율령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렇지만 혜공왕대(765~80년) 지배자 사이의 대립이 격심해지고, 선덕·원성왕대에도 그 여진이 남아 있어 정치적 혼란 수습에 몰두하였다. 800년 애장왕이 즉위하고 彥昇이 섭정으로 되었다. 이때 五廟制 확립, 공식 20여 조를 반포하고, 또 王母·王妃의 책명을 행하는 등 율령 체제의 재편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스스로 「中華」라고 하는 관념이 재인식되었다. 『三國史記』에는 이미 신라의 영역 내에 편성된 탐라가 801년 朝貢使를 파견했다는 기록, 공적 교섭이 단절되어 있던 일본이 803년 이후 5년간에 4회 遣使한 기록이 보인다. 이 일본의 遣使는 延曆年間의 遣唐使 파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율령 체제의 재건을 도모하던 신라는 탐라·일본이 마치 복속의 증명으로써 遣使해 왔다고 생각하고, 변질된 자국의 「華夷思想」을 재편·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836년 일본이 견당사 파견에 앞서, 遣唐使船이 표착할 경우의 보호를 신라에 의뢰하기 위해 파견한 紀三津에게 返書로 준 신라의 執事省牒에는 그 편린이 엿보인다. 즉 「恕小人荒迫之罪, 申大國寬弘之理」(『續日本後紀』 承和 3년 12월 丁酉(3日)條)에서 보이듯이, 紀三津의 파실을 寬恕하는 「大國」으로서의 자부심이 표명되어 있다.²⁴⁾

한편 이러한 신라의 「華夷思想」 틀 속에 얽매이지 않는 국제 의식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828년 淸海鎮大使로 된 張保臯이다. 장보고(張弓福·張寶高)의 출자는 불분명하지만, 당으로 건너가 徐州에서

24) 石上英一, 1984, 「古代國家と對外關係」, 『講座日本歴史 古代 2』, 東京大學出版會.

軍中小將으로 되고, 離唐 뒤, 신라인 노비의 매매를 저지하기 위해 現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두었다. 장보고는 활발한 교역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는 楚州·揚州·蘇州, 그리고 일본의 大宰府에서 文屋宮田 麻呂 등과도 교역하였다.²⁵⁾ 이러한 범위를 보면, 장보고는 그 전에 없던 국제 상인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생각된다. 장보고는 840년, 일본에 遣使하여 방물을 올렸다고 한다. 일본은 「人臣無境外之交也」(『續日本後紀』 承和 7년 12월 己巳(27日)條)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보고는 「朝貢」이라는 이름으로 對일본 교역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게다가 그 배후에는 일본과의 공적인 외교를 단절한 신라 정부가 장보고를 매개로 이득을 도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신라는 장보고와 같은 「華夷思想」에 규제되지 않는 國際人이 등장했지만, 앞서 본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 지배계층의 대부분은 여전히 「華夷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4. 渤海의 「華夷思想」

발해는 그 영토가 7세기 말 靺鞨諸部가 합거한 중국 동북 지방 및 러시아 연해 지방, 또 舊고구려령을 포함한 한반도 북부에 걸쳐 있었다. 속말말갈과 고구려의 유민을 중심으로 건설된 동북아시아 최초의 통일국가이다.²⁶⁾

정권 수립 당초, 발해(振國)의 대조영은 唐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돌궐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지만, 則天武后가 사망한 뒤 당과 긴밀한

25) 蒲生京子, 1979, 「新羅末期の張保臯の台頭と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戶田芳實, 1967, 『日本領主制成立史の研究』, 岩波書店.

26) 酒寄雅志, 「東北アジアの動向と古代日本 -渤海の視点から-」(金子 注 10 前掲書; 本書 第一編 第二章), 同, 「渤海國家の史的展開と國際關係」(蒲生 注25 前掲誌; 本書 第一編 第一章), 古畑徹, 1995, 「渤海使の文化使節的側面の再検討 -渤海後期の中華意識・對日意識と關連させて-」, 『東洋史論集』 6이 발해의 中華化에 대해 來日한 渤海使와의 漢詩 교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관계를 갖게 되었다. 713년 渤海郡王에 책립되고, 당으로의 조공을 개시하였다. 한편 이를 기회로 발해는 영역 확대를 시도하고, 730년 중반에는 남부의 粟末·白山靺鞨 복속을 완수하였다. 이 지역은 본래 고구려령으로, 고구려 지배의 遺制가 다분히 잔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발해는 당의 율령법과 예제를 도입하여 고구려의 유제를 불식하면서, 새로운 지배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²⁷⁾

다만 북방 靺鞨諸部 지배는 매우 어려웠다. 722년 靺鞨諸部 중 최북방에서 勁健을 자랑했던 흑수말갈은 발해에 통고하지 않고 入唐使를 과견하였다. 이를 계기로 흑수말갈과 발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舊唐書』卷199 下 渤海靺鞨傳에 의하면, 돌궐의 吐屯 즉 突厥大可汗 직속 감독관 설치를 요청한 흑수말갈은 「皆先告我同去」라고 하여, 발해에 미리 양해를 얻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발해는 분명히 우월한 입장을 가지고, 흑수말갈을 蕃族으로 간주하였다. 당은 726년 그 중심 부락에 黑水府를 두어 기미로 복속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감을 품은 第2代王 大武藝는 흑수말갈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그 배경에는 발해 왕권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발해가 당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靺鞨諸部와 주변 국가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 사건은 당과의 항쟁을 야기하고, 일본과 통교를 개시하는 단서였다. 그러나 736년 무렵 발해가 당에 사죄하여 兩國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738년 새롭게 등극한 제3대왕 大欽茂는 영역 확대를 계승하였다. 拂涅靺鞨(黑龍江省 密山 부근)·鐵利靺鞨(撓力河 以東)을 750년대에 복속시키고, 불열 故地에 東平府 5주, 철리 고지에는 鐵利府 6주를 두었

27) 渤海王은 8세기 무렵부터 일본에 대해서 「高麗國王」이라고 자칭하는 등,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명하고 있지만(石井正敏, 1975, 「日渤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意識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中央大學)』 4), 이는 일본과의 외교 정책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함이고, 국내적으로는 오히려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불식하고 唐制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닐까.

다. 그렇지만 越喜(黑龍江省 富錦 부근)·虞婁(黑龍江省 依蘭 부근)·黑水 북속은 9세기로 넘어간다. 819년 즉위한 제10대왕 大仁秀 시대에 이르러 靺鞨諸部 정도가 행해졌고 월희·우루 등 북부 말갈 북속을 완수하였다. 『新唐書』卷219 渤海傳에 「仁秀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有功」이라 하여, 거의 그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越喜靺鞨에는 불열·칠리 兩 말갈과 마찬가지로 懷遠府 9주를 설치하고, 발해의 이른바 말갈 지배 아래에 넣었다. 그러나 후수말갈에는 府州制가 적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해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북속을 완수한 靺鞨諸部와 발해 왕권의 사이에는 貂와 虎·熊·海豹 등 피혁품과 乾文魚·昆布 등 수산품, 인삼·松實·蜜 등 특산물을 공납하는 관계를 성립하였다. 다시 이 물품은 당·일본과의 외교 때에 조공품으로 사용되었다.²⁸⁾

이처럼 발해가 패권을 넓힌 동북아시아는 靺鞨諸部 외 舊고구려인들이 할거하는, 말하자면 다양한 민족 집단이 혼재한 곳이었다. 따라서 그 북속을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발해 왕권의 탁월성은 물론, 지배 중심의 부족으로 된 속말·백산말갈을 통해 후수말갈을 비롯한 북방 靺鞨諸部에 우월성을 과시하는 정치 사상으로써 「華夷思想」은 불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발해는 9세기 前半,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확립하였다. 왕도 상경용천부 건설은 물론, 그 중심에 郛·銅·涑 3주를 獨奏州로 설정한 것은 중국의 『周禮』에 근거한 王畿制를 상기시킨다. 靺鞨諸部에 군림하는 발해의 대왕을 정점으로 하는 禮的 질서에 근거한 세계 창조를 목표로 했을 것이다.

그러면 발해는 주변 국가 즉 신라·일본에 어떠한 국제 의식을 가졌던 것일까.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발해 정권 수립 당초에 교섭이 있었다. 733년 신라가 당과 발해의 항쟁에 군사 개입한 뒤, 양국은 2세

28) 鈴木靖民, 1985, 「渤海の首領に關する基礎的研究」,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기 동안 거의 교섭하지 않았다. 사료상은 790년과 812년 신라의 사자가 발해로 간 것을 알 수 있을 뿐, 발해의 對新羅觀을 알기 어렵다. 다만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 중에, 897년 渤海賀正使 大封裔가 唐 조공 자리에서 발해의 국력을 「強」 「盛」, 반대로 신라를 「弱」 「衰」로 인식하여, 신라와 석차를 다투었다고 전한다. 9세기 말 발해의 신라에 대한 優越觀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한편 일본에 대한 의식은 727년 來日한 高仁義가 가져온 국서를 보면, 書式은 上長으로 받들면서도 그 내용은 同格으로 취급하고 있다. 고구려의 후신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코 부용국으로서의 태도와 조공의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당시 흑수말갈과의 대립이 對唐 관계의 악화로 발전하였다. 발해의 배후에서 당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신라가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국제 정세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親仁結援, 庶叶前經」(『續日本紀』 神龜 5년 正月 甲寅(17日)條)라고 하듯이 일본과의 제휴를 도모하였다. 발해는 외교상 표현을 낮추면서도 일본을 동등·동격의 나라, 말하자면 「隣國」으로 보고 있었다.³⁰⁾ 따라서 759년 신라 정토를 계획한 일본과 군사 동맹을 체결했던 것이다.³¹⁾

지금까지 발해와 신라·일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3대왕 대흥무의 제4녀인 貞孝公主의 묘지는 발해 왕권의 정치적 이상을 전한다. 즉 발해왕은 仁德이 넘치는 聖君主로 찬미되고, 발해왕의 모범이 중국 三皇五帝인 점을 서술하였다. 王된 자는 仁孝라는 유교적 도덕 이념에 근거한 德을 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³²⁾

771년 일본에 과전한 壹萬福이 휴대한 국서에서 발해왕을 「天孫」

29) 濱田 注20 前掲論文.

30) 石井正敏, 1974, 「初期日渤海交渉における一問題 -新羅征討計畫中止との關連をめぐって-」, 『森克己博士古稀記念史學論集 對外關係と政治文化 1』, 吉川弘文館.

31) 酒寄 注23 前掲論文.

32) 『貞孝公主墓誌』는 1980년 中國 延邊朝鮮族自治州 和龍縣의 龍頭山에서 출토됐고, 792년 貞孝公主가 沒한 것을 알 수 있다. 王承禮(古畑徹 譯), 1982, 「唐代渤海『貞惠公主墓誌』と『貞孝公主墓誌』の比較研究」, 『朝鮮學報』 103.

으로 표현하여, 일본의 불쾌함을 샀다(『續日本紀』 寶龜 3년 2월 己卯(28日)條). 이는 발해를 중심으로 한 천하 사상의 존재를 주장하고, 「天孫」 발해왕으로서 지배의 정당성과 초월성을 자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덕 및 세계관을 볼 때, 발해왕은 靺鞨諸部와 신라에 군림하는 「中華」의 王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엿보인다.

지금까지 고대 한반도 국가 및 발해의 「華夷思想」 형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 나라들은 왕권의 성장과 영역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 즉 古代國家의 형성 속에서 「華夷思想」을 드러내었다. 바꾸어 말하면, 고대 한반도 국가 및 발해는 영역 확대에 동반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 왕이 지배 계층 및 지역 수장에게 초월적 기능을 顯現하기 위한 정치사상으로써 성립한 것이 「華夷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Ⅲ. 日本의 「華夷思想」

1. 日本의 「華夷思想」 展開

785년 11월 桓武天皇이 長岡京 南郊의 交野柏原에서 天神, 즉 「昊天上帝」를 처음으로 제사하였다. 천명사상에 근거하여 天帝로부터 지상 지배를 위임받은 桓武天皇은 天子로서 제사한 것이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황제권 강화를 위해 호천상제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郊祀制度가 변화하고 있었다.³³⁾ 桓武天皇도 唐 郊祀에 본떠 천황 권력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천자로 된 桓武天皇은, 「遂使仁被渤海之北, 貊種歸心, 威振日河之東, 毛夷屏息. 化前代之未化, 臣往帝之不臣」(『日本後紀』 延曆 16년 2월 己巳(23日)條)이라고 하듯이, 그의 인덕이 蝦夷는 물론 발해까지 퍼졌다고 칭송하고 있다. 7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蝦夷 복속

33) 金子修一, 1979, 「魏晉より隋唐に至る郊祀・宗廟の制度について」, 『史學雜誌』 88-10.

전쟁의 성과와 기존보다 빈번해진 발해의 조공, 게다가 이 시기 隼人の 조공 停止, 大隅・薩摩國에 班田制 실시 등이 桓武天皇의 인덕이 사망으로 확대했다고 표현됐을 것이다.

대체로 일본은 701년 율령국가로 鼎立하였다. 중국 왕조의 화이사상에 비추어, 천황을 정점으로 국가의 통치권 및 범위를 「化内」, 그 외부 영역을 천황의 「教化」가 미치지 않는 「外化」로 구분하였다. 外化에는 「隣國」 즉 大唐, 「蕃國」은 신라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 국가, 蝦夷・隼人 외, 墮羅=耽羅, 舍衛와 多禰島人 등의 南島人을 「夷狄」으로 보고 법적 서열화하였다. 일본에도 「華夷思想」이라는 정치 사상이 율령법 체계에 반영된 것이다.³⁴⁾

701년 元日に 藤原宮 大極殿으로 出御한 文武天皇에게 그 前年 來日한 新羅使를 「蕃夷의 使者」로 진열하고, 715년 元日に 唐 長安城의 大明宮 含元殿을 본떠 구축된 平城宮의 朱雀門 앞에서³⁵⁾ 元明天皇 出御에 陸奥・出羽의 蝦夷와 南島の 奄美・夜久・度感・信覺・球美가 방물을 바쳤다. 이는 「小帝國」의 모습을 신하들에게 가지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었다.³⁶⁾ 더욱이 712년 정월에 완성된 『古事記』에는 신화적 세계인 「葦原中國」을 豊穰에 천손이 강림하는 「中國」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연결된 현실적 세계인 「大八島國」을 천하의 중심,

34) 石母田正, 1973,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日本古代國家論』 第一部, 岩波書店(1989, 『石母田正著作集』 4, 岩波書店); 同, 「天皇と『諸蕃』」(同上). 그 뒤, 石上英一, 1987,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山尾幸久, 1989, 「『日本天皇』と華夷思想」,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熊田亮介, 1992, 「蝦夷と古代國家」, 『日本史研究』 356; 今泉隆雄, 1991, 「蝦夷の朝貢と饗給」, 『東北古代史の研究』, 吉川弘文館; 伊藤循, 1994, 「古代王權と異民族」, 『歴史學研究』 665 등에 의해, 石母田說이 계승·발전되었다.

35) 淺野充, 1990, 「古代天皇制國家の成立と宮都の門」, 『日本史研究』 338; 同, 1992, 「古代日本・朝鮮における國家形成と都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狩野久, 1990, 「律令國家と都市」, 『日本古代の國家と都城』, 東京大學出版會.

36) 鈴木靖民, 1987, 「南島人の來朝をめぐる基礎的研究」, 『東アジアと日本』 歴史編, 吉川弘文館; 熊谷亮介, 1997, 「古代國家と南島・隼人」, 『歴史評論』 555.

즉 세계의 중심인 것을 보증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華夷思想」에 근거한 세계관을 『古事記』를 통해 보완한 것으로 생각된다.³⁷⁾ 또 743년 발원된 毘盧舍那大佛의 造立은 천하의 富와 勢를 가진 聖武天皇의 업적이며, 중생이 普賢行을 실천하고 華嚴經의 이상이라는 蓮華藏世界를 이 세상에 現出하고자 한 것이었다.³⁸⁾ 말하자면 지금까지 배가된 「華夷思想」에 다시 불교의 우주관·세계관이 가미시켜, 새로운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2. 日本(倭)의 「華夷思想」 形成

倭가 동아시아 역사상에 그 이름을 드러낸 것은 『漢書』卷28 下地理志이다. 紀元前 1세기 무렵 100여 국으로 나누어진 倭人이 樂浪郡을 매개로 前漢에 정기적으로 조공하였다. 또 『後漢書』卷115 東夷傳에 의하면, 紀元 57년 福岡縣 那珂郡 부근에 존재한 奴國王이 倭의 한 國王으로써 樂浪郡 중개를 거쳐 낙양으로 가, 光武帝로부터 印綬를 수여받았다. 이른바 「漢委奴國王」 印이다. 107년 倭國王 帥升이 生口 160명을 헌상하고 安帝에게 알현을 청했다고 한다. 그 뒤 후한의 쇠퇴와 동반하여 倭國의 靑亂이 일어났는데,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에 걸쳐 倭의 首長들이 卑彌呼를 共立하였다.

이처럼 紀元前 1세기부터 기원 3세기에 이르는, 말하자면 彌生 中·後期の 日本列島에서는 산거해 있던 小集落이 서서히 하나의 大集落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인 공동체가 출현하였다.³⁹⁾ 게다가 近年의 고고학 성과에 의하면, 石槍과 石鏃 등 무기가 발달하고 대량으로 생산됐다고 한다. 또 전쟁에 대비하여 高地性集落과 外敵으로부터 방위적 기능을 갖춘 環濠集落이 조영되는 등, 彌生時代의 倭人 사회는 靑亂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⁴⁰⁾ 『後漢書』 東夷傳에 보이는 2세

37) 神野志隆光, 1986, 『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38) 大平聰, 1989, 「天平期の國家と王權」, 『歴史學研究』 599.

39) 都出比呂志, 1984, 「農耕社會の形成」, 『講座日本歴史 1 原始・古代 1』, 東京大學出版會.

40) 佐原眞, 1975, 「かつて戰爭があつた -石鏃の變質-」, 『古代學研究』

기 후반 「倭國大亂」은 정치집단 통합 과정 중의 시련이었다. 이러한 쟁란 중 일본열도 내에 형성되어 갔던 정치적 집단은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중국 황제의 권위를 바탕으로 다른 정치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卑彌呼는 239(景初 3)년 魏에 조공하였다. 「親魏倭王」으로 책봉되고 金印·紫綬를 비롯한 銅鏡과 五尺刀 등을 받았다. 이 卑彌呼의 책봉과 회사품들은 王으로서 권위를 높이고, 「女國王」의 남쪽에서 「不屬女王」(『三國志』卷30 魏書 倭人傳)했다는 狗奴國과 「女王國東, 渡海千餘里, 復有國. 皆倭種」(同書)이라는, 일본열도 내의 다른 정치 집단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4세기로 들어가면, 일본열도는 九州에서 關東에 이르는 首長間の 정치적 교섭이 행해지고, 畿内の 유력 수장 연합이 각지에서 패권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배경에는 316년 西晉의 멸망 그리고 五胡十六國과 東晉이 대립하는 등 중국의 혼란이 고려된다. 즉 일본열도 정치적 집단이 중국의 패권에 근거한 우월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됐고, 그 때문에 倭는 일시 중국에 조공하지 않았다. 다만 4세기 후반으로 되면, 고구려·백제·신라의 대립에 개입을 시작하였다. 石上神宮에 전하는 七支刀는 369(東晉 泰和 4)년 신라·고구려와 대치하는 백제를 왜가 군사적·정치적으로 지지한 것을 보여준다.⁴¹⁾ 이처럼 왜는 백제와 연대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대항했는데, 『廣開土王碑』에 의하면 391(辛卯)년 이후 倭는 백제와 신라를 「臣民」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397년 백제왕이 태자 腆支를 入質하여 倭와의 연휴를 강화하였다. 이는 또 백제가 倭로 종속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반도로의 군사 행동은 畿内 및 畿内 以西의 다양한 수장 결집을 상기시킨다.⁴²⁾ 또 奈良縣의 磯城과 佐紀에 점재하는 거대한 前方後圓墳은 畿内の 수장이 그 외 여러 지역의 수장에 비해 탁월하고,

78; 同, 1991, 「彌生時代の戰爭」, 『邪馬臺國時代の東日本』, 六興出版.

41)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博士 頌壽記念 『日本史學論集』 上, 吉川弘文館.

42) 鈴木 注41 前掲論文.

군사 지휘권 혹은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또 전방후원 분이라고 하는 공통된 墳型을 여러 지역 수장이 공유한다는 점은, 일본열도 내의 수장이 연합하여畿内の 수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던 것을 보여준다.⁴³⁾

이처럼 倭의 주체는畿内 왕권이었다. 이畿内 왕권은 5세기에는 남하정책을 전개한 고구려에 대항하여 중국 宋 왕조에 遣使朝貢하였다. 역대 倭王은 宋 황제에게 고구려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의 군사 지배권을 승인하는 칭호를 요청하였다. 이는 倭가 4세기 중반 이래 한반도로의 군사 개입에 의한 자신감, 그리고 백제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大國 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38년 倭王 珍은 倭隋 등 13명에게 平西·冠軍·輔國將軍의 敍正을 정리하고, 또 倭王 濟는 451년 23명에게 장군·군태수의 敍正을 요청하였다. 倭王 武의 상표문에,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宋書』卷97 蠻夷傳 倭國)이라는 내용이 있다. 倭王權이 열도 각지의 수장들에게 將軍號·郡太守를 假授하고, 다시 중국 황제에 敍正 奏請하였다.⁴⁴⁾ 말하자면 「封國偏遠, 作藩于外」(同書)로 중국 황제의 「華夷思想」에 근거한 책봉 관계에 의거하여, 대왕 아래로 일본열도 내의 수장층을 서열화해 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478년 倭王 武는 開府儀同三司를 자칭하고, 臣下에도 모두 假授하였다. 武 때에 이르러 중국 황제에 의지하지 않아도 각지 수장층을 결집하고, 또 정치적 서열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⁴⁵⁾

3. 日本의 「華夷思想」 成立

502년 倭王 武가 梁으로부터 征東將軍號를 수여받은 뒤, 倭는 중국

43)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說 -前方後圓墳體制の提唱-」, 『日本史研究』 343.

44) 鈴木靖民, 1984,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都出 注39 前掲書), 同, 1985 「倭の五王の外交と内政 -府官制的秩序の形成-」,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續群書類從完成會.

45) 鈴木 注44 前掲論文.

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대에서 물러났다. 600년 제1회 遣隋使를 파견하기까지 잠시 중국과의 교섭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가야 지역 영유를 둘러싼 백제·신라의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倭도 군사적 개입을 자주 행하였다. 이러한 倭의 한반도 관여는 고구려 남하에 대항하는 백제로의 지원은 물론, 가야 지역을 매개로 鐵 등의 광물 자원 확보⁴⁶⁾와 선진 문물·財寶 입수를 목적으로 하였다. 513년 백제는 伴跋(大伽耶)가 己汶을 빼앗았기 때문에, 倭에 원조를 요청하고 五經博士를 상번했는데, 일종의 종속 외교이기는 하였다. 또 倭에 있어서는 선진 문화의 중요한 입수 방법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築紫國造 磐井은 신라와 함께, 한반도로 출병하려고 한 近江毛野의 군대를 저지하였다. 磐井의 난은 親百濟 정책을 반복한 畿內 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또 외교·군사권을 독점한 최고 수장인 대왕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결국 대왕(繼體天皇)의 승리로 끝났지만, 繼體의 사후 새로운 大王의 추대를 둘러싸고 이른바 「辛亥의變」이라는 왕권의 동요가 일어났다.⁴⁷⁾ 그러나 이 變 중, 열도 각지 수장의 무력 저항은 단절되고, 倭王權 大王의 우월성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한편 가야 문제는 倭에 있어서 긴급한 현안이었다. 532년 金官國, 또 562년 大加耶가 각각 신라에 병합되었다. 加耶에서 倭는 신라를 매개로, 575년 「任那의 調」를 거두었다. 「任那의 調」는 「任那」 즉 金官王家가 532년 신라에 복속될 때, 식읍인 金官 四邑의 산출품을 복속의 증좌로 신라에 공납한 것이다. 그것을 倭王權은 신라·가야를 일찍이 예속시켰다는 故事에 근거하여 공납시켰다. 한편 신라는 가야 부흥을 명목으로 倭王權의 군사 원조를 끌어내려는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7세기 전반까지 「任那의 調」를 공납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⁸⁾ 이

46) 鈴木靖民, 1995, 「加耶の鐵と倭王權についての歴史的パースペクティヴ」, 『日本古代國家の展開』 上, 思文閣出版.

47) 川口勝康, 1978, 「紀年論と『辛亥の變』について」, 『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 上, 吉川弘文館; 平野卓治, 1992, 「ヤマト王權と近江・越前」, 『新版古代の日本』 5, 角川書店.

리하여 倭王權은 조공이라는 복속 형태를 설정하고, 우월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600년, 100년 만에 중국으로의 사자, 즉 遣隋使가 파견되었다. 이 遣隋使에 의해 중국의 禮制가 倭로 들어왔다. 이 예제에 근거하여 冠位十二階와 憲法十七條⁴⁹⁾ 및 朝禮가 제정되는 등 대왕을 정점으로 한 국내 질서 형성이 시도되었다. 608년 入隋한 小野妹子는 隋使 裴世清과 함께 귀국하였다. 즉시 왜국은 隋의 『江都集禮』에 규정된 「賓禮」에 근거하여, 국왕이 있는 宮室로 裴世清을 부르고 國書·信物の 수납과 향연을 행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영접을 시행하였다.⁵⁰⁾ 610년 新羅使·「任那使」에도 「賓禮」를 채용하였다. 왜국왕은 사절과 회견하지 않고, 使의 旨는 구두 전달에 그치는 등, 隋와 고대 한반도 국가의 사절에 대한 「賓禮」는 차이가 있었다.⁵¹⁾ 이는 『隋書』 卷81 東夷傳 倭國에 「新羅·百濟, 皆以倭爲大國, 多珍物, 並敬仰之, 恒通使往來」라고 하듯이, 백제·신라를 倭의 아래에 두고, 자신을 「大國」으로 인식하는 「華夷思想」을 구사한 것을 보여준다.

다만 607년 隋로 파견된 小野妹子가 지참한 국서에는 「日出處天子, 致書日沒處天子. 無恙云云」(『隋書』 倭國傳)이라고 하여 煬帝의 분노를 샀다. 이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說이 있지만, 그 書式이 朝貢國이 아닌 「隣對國」 형식을 취하고,⁵²⁾ 또 「天子」號를 칭한 것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天子」號는 天命思想에 근거한 중국 황제만의

48) 石上英一, 1978,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山尾幸久, 「『任那の調』の實態と性質」(山尾 注34 前掲書).

49) 若月義小, 1982, 「冠位制の基礎的考察 -難波朝廷の史的位置-」, 『立命館文學』 448~50.

50) 田島公, 1986, 「外交と儀禮」, 『日本の古代7 まつりごとの展開』, 中央公論社; 大隅清陽, 1992, 「唐の禮制と日本」, 『古代を考える 唐と日本』, 吉川弘文館.

51) 平野邦雄, 1985, 「國際關係における“歸化”と“外蕃”」, 『大和前代政治過程の研究』 吉川弘文館.

52) 平野 注51 前掲論文.

專有이고, 주변 국가의 왕은 참칭하기는 해도 중국 천자 앞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隋의 「天」과 倭의 「天」이 경합한 것이다.

618년 隋에 이어 唐이 들어섰다. 당은 7세기 중반에 패권을 확대하여 주변 국가를 위협했고, 1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一大帝國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군림하였다. 631년부터 676년에 행한 당의 한반도 출병은 고대 한반도 국가는 물론 왜국에도 압박을 주었고 그 대응을 재촉하게 되었다. 왜국에서는 백제·고구려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蘇我氏와 백제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親新羅·唐 외교 정책으로도 전개하려고 한 孝德天皇 옹립과가 대립하였다. 이는 외교 관계 대립으로도 이어져, 645년 6월 乙巳의 變을 유발하였다.⁵³⁾ 그러나 660년 7월 당이 신라와 연휴하여 백제를 멸하자, 왜국은 백제 지지를 명확하게 하고 백제 부흥을 목표로 출병하였다. 이때 인질로 머무르고 있던 백제 왕자 餘豐(豐璋)에게 당시 최고 관위인 織冠을 주고, 귀국하여 백제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즉 백제왕을 책봉함으로써, 중국을 모방한 「帝國」의 실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⁵⁴⁾

그러나 663년 왜국은 백제 구원에 실패하였다. 이는 「華夷思想」은 물론 여기에 근거한 제국 구조에 큰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고대 한반도 국가에 대한 직접적 정치·군사 개입은 곤란하였다. 倭王權은 망명해 온 백제 왕족과 귀족·관료에게 왜의 관위와 「百濟王」을 비롯한 氏姓을 주어 신하의 반열에 배치하였다. 즉 왜국의 「帝國」 질서로 편입한 것이다.⁵⁵⁾

4. 日本의 「華夷思想」 變質

고대 일본의 「華夷思想」은 마치 桓武天皇 때 가장 고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은 「華夷思想」 변질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고대국가 「東夷의 小帝國」이라는 구조가 과탄되는 것이었다.

53) 鈴木靖民, 「七世紀東アジアの争亂と變革」(金子 注10 前掲書).

54) 筧敏生, 1989,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55) 筧 注54 前掲論文.

신라와의 관계는 779년 이후, 외교 사절의 來日은 중단되어 조공 관계는 중언을 맞이하였다. 836년 가지고 온 신라의 執事省牒에는 「怨小人荒迫之罪, 申大國寬弘之理」(『續日本後紀』 承和 3年 12月 丁酉(3日)條)라는 구절이 있다. 遣新羅使인 紀三津을 「小人」으로 평가하고, 신라 자신을 「大國」이라고 칭하는 등, 「華夷思想」에 근거한 일본의 「東夷의 小帝國」 질서는 신라의 「大國」 의식과 충돌하였다. 즉 현실의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⁵⁶⁾

한편 발해는 8세기 말 이후, 「朝貢」이라고 하여 빈번하게 來日하였다. 이는 일본의 「華夷思想」에 부합하였다. 9세기 초에는 발해왕으로의 위로조서 발급이 정착되고, 그 내용도 太政官牒과 모두 「華夷思想」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실체는 826년에 右大臣 藤原緒繼가 渤海使를 「實是商旅, 不足隣客. 以彼商旅, 爲客損國」(『類聚國史』 卷193 殊俗 渤海 上 天長 3年 3월 戊辰(1日)條)라고 간파하고 있듯이, 발해는 교역을 목적으로 했고, 「東夷의 小帝國」인 일본은,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⁵⁸⁾

또 桓武天皇이 「威振日河之東, 毛夷屏息」이라고 자부한 蝦夷도 복속을 완수한 시점에 內民化하여 율령정부에 조공해 오는 이민족은 아니었다. 또 9세기로 들어가면, 「南溟淼淼, 無國無敵, 有損無益」(『類聚三代格』 卷5 天長 元年 9月 3日 太政官奏)라고 하여, 南島에 대한 의식은 희박하게 되었다. 즉 일본 내외에는 「化外」 「夷狄」은 존재하지 않았고,⁵⁹⁾ 일본의 「華夷思想」은 矮小化된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840년대로 들어서, 일본은 排外的 또는 閉鎖的인 국제 의식을 가지게 된다. 840년 12월 신라인 張保臯가 조공을 요청하고 遣使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 「爲人臣無境外交也」(『續日本後

56) 石上 注24 前掲論文.

57) 中野高行, 1984, 「慰勞詔書に關する基礎的考察」, 『古文書研究』 23; 石井正敏, 「一〇世紀の國際變動と日宋貿易」(金子 注10 前掲書).

58) 石上 注24 前掲論文.

59) 鈴木 注36 前掲論文; 大平聰, 1992, 「歷史研究と南島」, 『沖繩研究ノート 一』, 宮城學院女子大學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

紀』 承和 7年 12月 己巳(27日)條)라고 하여 조공을 승인하지 않고, 또 842년 8월 大宰大貳 藤原衛는 신라에 대해 「常懷奸心, 苞茅不貢. 寄事商賈, 窺國消息. 方今民窮食乏. 若有不虞, 何用防天」(『續日本後紀』 承和 9年 8月 丙子(15日)條)라는 위기감을 품고 신라인의 귀화를 승인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외교를 취하였다. 말하자면 일본의 외교 정책은 신라로의 위협에서 배외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869년 5월 신라 해적의 豊前國 貢調船 습격에 의해 현실로 되었다. 그 豫兆는 이 사건에 앞선 866년 7월 신라로 건너간 肥前國 基肆郡의 擬大領인 山春永이 對馬를 襲取하려 했고, 同年에 前 隱岐國守 越智宿禰貞厚가 신라인과 반역을 꾀한다는 무고 사건이 발각되고 있는 것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870년 신라의 對馬 습격 계획이 전달되고, 大宰大貳 藤原元利萬侶가 신라 국왕과 通謀한 행동이 고발되는 등 사건(同年)이 연이어 일어나, 한층 일본은 신라를 敵視·賊視하게 되었다.⁶⁰⁾ 이 신라 해적의 습격 사건 직후, 清和天皇은 伊勢·石清水 등의 諸社에 사건을 보고하였다. 그 告文에 「我日本朝波, 所謂神明之國奈利. 神明之助護利賜波, 何乃兵寇加可近來岐」(『三代實錄』 貞觀 11年 12月 14日 丁酉條)라고, 神國 의식에 근거한 神의 가호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神國」으로서 친황의 통치 영역=日本國이라는 한정된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다.⁶¹⁾

또 신라 해적 습격과 878년 3월 出羽國에서 일어난 俘囚의 亂 때, 入唐僧 常曉가 唐에서 가져온 太元帥法⁶²⁾을 궁중에서 修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이 修法은 왕의 국경 내를 수호하여 隣王怨敵을 승복시키고 逆臣을 멸한다는 취지이다. 또 국내에서 諸疾·疾苦를 소멸시키

60) 佐伯有清, 1970, 「九世紀の日本と朝鮮」, 『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遠藤元男, 1966,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 『駿台史學』 19.

61) 大日方克己, 1990, 「古代における國家と境界」, 『歴史學研究』 613.

62) 石上 注24 前掲論文. 또 佐藤長門氏は, 常曉는 太元帥法을 請來했음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賊難調伏을 행한 것은 太元宗第二阿闍梨寵壽라고 한다(1991, 「太元帥法の請來とその展開 -入唐根本大師常曉と第二阿闍梨寵壽-」, 『史學研究集録』 16).

고 四方의 隣敵·大臣이 역심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왕의 境土에는 惡人·惡賊·諸鬼神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부에서의 侵害에 대해 자국 내의 평안만을 기원하는 修法이며, 그 폐쇄성은 앞의 神國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⁶³⁾

약간 뒤의 사건이지만, 1079년 11월 고려가 中風에 걸린 국왕 文宗의 치병을 위해, 일본으로 의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대한 大宰府의 返牒에서도 같은 의식이 보인다. 즉 「抑, 牒狀之詞, 頗睽故事. 改處分, 而曰聖旨, 非蕃王可稱, 宅遐陬, 而跨上邦, 誠彝倫攸斁」(『朝野群載』卷20 異國)이라 하고 있다. 고려를 「遐陬」 즉 변경의 國으로 배치하고, 일본을 大國이라는 뜻인 「上邦」이라 했으며, 또 고려왕의 意思를 「聖旨」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⁶⁴⁾ 일본이 「中華」로 자부하는 편린을 잘 엿볼 수 있다. 의사 파견이라는 人道的 행위에도 고려의 非禮를 명분으로 거절하는 모습은 天子의 인덕이 넓음을 本旨로 하는 「華夷思想」 이념에서의 이탈이었다. 일본의 폐쇄성이 한층 촉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 일본(왜)의 「華夷思想」은 고대 한반도 국가와의 대립·항쟁, 또는 문물 입수가 활발했던 7세기 중반까지는 자신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극히 현실적인 요소를 가진 정치 사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무력을 통한 주변 국가들과 직접 대치하는 국제 긴장의 완화, 바다로 격절된 세계라고 하는 지리적 환경으로도 규제되었다, 神國 의식으로 대표되는 극히 矮小化 된 세계관으로 변질해 가면서도, 「華夷思想」은 국가 권력의 자주성·자발성의 발로로 근세까지 파급됐던 것이다.

63) 大日方 注61 前掲論文.

64) 奥村周二, 1985, 「醫師要請事件にみえる高麗・文宗朝の對日姿勢」, 『朝鮮學報』 117; 田島公, 1991, 「海外との交渉」, 『古文書の語る日本史』 筑摩書房.

IV. 베트남의 「華夷思想」

베트남의 阮朝(1802~1945년)는 「南方의 中華帝國」으로 불리면서, 高蠻(캄포디아)·南掌(무앙프라방)·萬象(비엔티안 왕국)·暹羅(타이)를 비롯한, 그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라이 族을 「水舍國」 「火舍國」이라 하여 조공시키고 있었다. 왕은 스스로 「大南國大皇帝」 「朕」 「天子」 등을 칭하고, 또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다. 베트남 阮朝는 「中華」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⁶⁵⁾ 마지막으로 이 베트남의 「華夷思想」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은 紀元前 2세기 漢 武帝에게 정복된 이래, 10세기 초까지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 사이 중국으로부터 자립을 노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진압되었다. 939년 白藤江에서 南漢을 격파한 吳權이 왕위에 오르면서, 베트남은 마침내 지나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 뒤 吳權의 사망과 동시에 「十二使君」이라고 불리는 수장들이 紅河 델타 각지에서 상쟁했고, 이 혼란을 평정한 丁部領(재위 966~79년)이 966년 왕위에 올랐다. 丁部領은 「大勝明皇帝」라고 칭하고, 국호도 大瞿越(다이코비엣)로 하였다. 또 970년 元號 「太平」을 제정하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960년 五代十國의 분열을 통일한 宋은 丁部領을 交趾郡王으로 임명할 뿐 國王이라고는 하지 않았다(975년). 말하자면 중국의 內臣으로 취급당했고, 그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丁部領이 살해된 뒤, 980년 새롭게 帝位에 오른 黎桓(재위 980~1005년)에게도 安南都護靜海軍節度使(986년)과 交趾郡王(993년)으로 임명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철저히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독립 초기의 베트남 왕조가 지배한 재지 사회에 국가적 치수·수리 사업은 행해지지 않았다. 紅河 델타 내외 모두, 2~3세기의

65) 坪井善明, 1983, 「ヴェトナム阮朝(一八〇二~一九四五)の世界觀 -その論理と獨自性-」, 『國家學會雜誌』 96-9・10.

동손 期와 큰 차이가 없는 소규모 농업 기반, 교역 거점에 의한 반독립적인 재지 세력이 분포하였다. 베트남이란 국가는 그들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오랫동안 중국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군주관과 가족 제도, 관료제와 영역 지배 등도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中國的」인 국가는 아니었다.⁶⁶⁾ 즉 10세기 이후의 초기 베트남 三王朝 시대는 왕의 통일적 지배가 재지 수장에게 관철되지 못했고, 아직 불안정하였다.

그러나 黎桓은 남방의 참과(占城, 875년 성립)를 자주 공격하여, 조공시키고 있었다. 桃木至郎氏에 의하면 前黎朝(980~1009년) 때는 참과의 55회 조공 외, 眞臘(캄포디아)이 19회, 牛吼(현 타이백 지방의 타이族)가 2회, 哀牢(同)와 暹羅가 각 1회의 조공을 베트남으로 행했다고 한다.⁶⁷⁾ 그러나 이러한 주변 지역과의 조공 관계 체결이 반드시 주변 여러 국가·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동남아시아는 정치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의 힘이 강하면 주변에 흩어진 「國」을吸引하여 太陽系와 같은 체계를 만들어 내지만, 한번 중심의 힘이 약해지면 주위에 붙어있던 작은 「國」은 근처 다른 체계 속으로 들어가 조공 관계를 이룬다는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⁶⁸⁾ 베트남 왕권이 주변 국가와 조공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이는 財寶와 사람의 획득, 교역 루트의 지배에 의한 富의 축적을 목적으로 할 뿐, 안정적인 신중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1009년 黎桓의 왕조가 무너지자, 새롭게 左親衛殿前指揮使인 李公蘊(재위 1009~28년)이 李王朝를 열었다. 李王朝는 중국 불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또 울령제를 채용하여 관료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체제 확립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李王朝의 지배 지역은 紅河 델타 중추부로 한정됐고, 델타 주변과 산악 지역에

66) 富澤壽男, 1990, 「王權觀念の原理と諸相」, 『東南アジアの思想』, 弘文堂.

67) 桃木至郎, 1990, 「十一—五世紀の南海交易とヴェトナム」, 『シリーズ世界史への問い 3 移動と交流』, 岩波書店.

68) 關本照夫, 1987, 「東南アジアの王權の構造」, 『現代の社會人類學 3』, 東京大學出版會에 따른, Tambiah의 「銀河政體論」 설명.

는 재지 주장이 아직 활거하고 있었다.⁶⁹⁾ 그 때문에 李朝는 자주 주변 지역으로 군사 행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1044년 李太宗(재위 1026~54년)은 참파가 베트남을 침공하자 보복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국왕 자야 싱하바르만 2세(乍斗)를 살해하였다. 또 뒤를 이은 李聖宗(재위 1054~72년)은 1069년 참파를 공격, 국왕 루드라바르만 3세(制矩)를 붙잡았다. 그의 해방을 조건으로 麻令·地理·布政 3주를 획득했는데, 이는 베트남 「南進」의 계기로 되었다.

베트남은 丁部頌에 의해 독립을 달성한 이래, 980년 중국 宋 왕조와의 전투를 경험하였다. 1076년 仁宗(李乾德, 재위 1042~1127년)은 廣源州를 근거지로 하고 있던 侬族(츄앙)의 귀속을 둘러싸고 宋 왕조와 다시 싸웠다. 베트남의 장군 李常傑은 이 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南國山河南帝居, 截然分定在天書」(『大越史記全書』 本紀3 英武昭勝 元年 3월초)라고 노래하였다. 중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李王朝 지배의 정당성이 鍛鍊된다는 자신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베트남 스스로를 「北」의 중국에 대치한 「南」으로 배치하여, 그 자립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도 베트남은 참파를 비롯한 眞臘·牛吼·哀牢·暹羅 등의 조공을 받고 있었다. 참파 등은 宋 王朝에도 조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二重朝貢」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도 또 宋 왕조에 조공하고, 1174년 英宗(李天祚, 재위 1138~75년)이 安南國王으로 책봉되어 독립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다시 남방의 眞臘·참파와의 전투가 빈발하고, 또 山獠와 牛吼·哀牢와의 항쟁도 활발하게 되었다. 게다가 皇帝位는 안정적으로 계승되지 못했고, 항상 찬탈의 위협이 있었다. 또 侬族의 수령 農存福이 1038년 스스로 昭聖皇帝라 하고, 또 1048년 存福의 아들 智高가 仁惠皇帝를 칭하였다. 「皇帝」號가 베트남 유일의 절대적 권위 칭호로 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베트남 왕권의 위약성을 간취할 수 있다.

69) 櫻井由躬雄, 1980, 「李朝期(一〇一〇~一二二五)紅河デルタ開拓試論 - デルタ開拓における農學的適應の終末-」, 『東南アジア研究』 18-2.

1225년 李朝를 대신하여 陳朝(~1400년)가 일어났다. 陳朝는 1257·83·87년의 세 번에 걸쳐 몽골 제국의 침입을 물리치고, 또 남방의 참파와의 전투도 계속하였다. 1312년 5월 英宗이 직접 참파를 공격하여 국왕 制至(자야 싱하바르만 4세)를 붙잡고 속령화하는 등, 베트남 史上의 획기를 이루었다.

陳朝는 紅河 하류에 본거지를 두고 紅河 델타에 할거하는 여러 세력을 정리하여 왕조를 열었으며 宗室(王族)을 각지에 분봉하였다.⁷⁰⁾ 그들은 적극적으로 간척을 진행하여 농업 생산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私兵 육성으로 자립한 군사력과 보급 능력을 가지면서도 중앙의 통일적 지휘를 받았다. 이러한 陳 王朝의 구조는 거둬들인 몽골 제국의 침공을 막고, 베트남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영역적 지배 관념이 희박했던 동남아시아의 고대 왕권·국가와 달리 베트남 통일국가로서의 길을 열었다.

또 陳朝는 과거에 의한 중국적 관료제를 도입하고 중앙집권화를 진행하였다. 유교도 중시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루었다. 또 國史의 편찬도 시행하여 1275년 黎文休에 의해 『大越史記』가 上進되었다. 陳朝 내내 편찬 사업을 속행한 것이다.⁷¹⁾ 『大越史記』는 한문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李朝에서 시작된 字喃에 의한 국어 문학이 왕성하게 되는 등,⁷²⁾ 베트남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고양되고, 「南方의 中華」라고 하는 베트남 독자의 세계관 성립을 준비하였다.

1400년 胡季犛가 왕위를 찬탈하고 胡朝를 열었다. 그러나 이것이 구실로 되어 1406년 明 永樂帝의 침공으로, 明의 一州로 편입되는 과혹한 통치를 받았다. 베트남에서는 저항 활동이 이어졌다. 1418년 黎利

70) 桃木至郎, 1982, 「陳朝期ヴェトナムの政治體制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洋史研究』 41-1.

71) 陳荆和, 1984, 「解題 大越史記全書の撰修と傳來」, 『校合本 大越史記全書』 上,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付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72) 藤原利一郎, 1986, 「陳朝時代における國語文學の勃興」, 『東南アジア史の研究』, 法藏館; 富田健次, 1976, 「ベトナムの民族俗字『字喃』の構造とその淵源」, 『東南アジア研究』 17-1.

(재위 1426~33년)가 거병하여 9년에 걸쳐 전투하고, 마침내 1428년 명을 구축하여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黎朝는 역대 베트남 왕조 중 최초로 율령제 국가를 정립한 왕조였다. 太祖 黎利는 군전법을 시행하고 병제를 개혁하여, 명의 지배로부터 재건을 도모하였다.

그 뒤 본격적인 참과 침공이 仁宗代(재위 1442~60년) 개시되고, 제 5대 聖宗(재위 1460~97년)으로 이어졌다. 성종은 1471년 참과를 직접 치고, 수도 비자야를 공략하였다. 이에 참과는 멸망하고, 비레라 곶 이북은 베트남의 직접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또 그 외 참과 嶺도 占城·花英·南蟠이라는 三國으로 분열하고, 大越皇帝의 지배 아래로 편입되었다. 게다가 1479년 쉐칸 高原에 사는 라오 人의 부락 盆蠻과 라오스의 란찬(老撾) 정토도 실행하여, 盆蠻에는 鎮寧府를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1485년 「諸藩使臣朝貢京國令」을 정하고, 이를 참과, 란찬, 샴, 자와, 말라카에 적용하였다. 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조공 무역을 하면서, 베트남은 남해 교역의 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지위를 형성하였다.⁷³⁾

이 黎朝는 陳朝보다도 더욱 유교를 기초로 한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⁷⁴⁾ 聖宗은 그 외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였다.⁷⁵⁾ 1471년 皇朝官制 교정·대학사 신설, 1479년 『大越史記全書』를 완성하였다. 1481년 洪德均田法, 1483년 國朝刑律의 제정 등 「華夷思想」에 근거한 「南方의 中華帝國」에 걸맞은 여러 요소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1427년 太祖 黎利의 명으로 阮薦이撰한 「平吳大誥」의 一節에, 「惟我大越之國, 實爲文獻之邦, 山川之封域既殊, 南北之風俗亦異, 自趙丁李陳之肇造我國, 與漢唐宋元而各帝一方」(『大越史記全書』 本紀 卷 10 明宣德 2년 12월 17일조)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여러 왕조가 중국 왕조에 대치하는 「各帝一方」이며, 또 「文獻之邦」이라는 동등한

73) 桃木 注67 前掲論文.

74) 坪井善明, 1990, 「ヴェトナムにおける儒教」, 『思想』 792.

75) 藤原利一郎, 「黎朝聖宗の官制改革」(藤原 注72 前掲書); 藤原 『黎朝聖宗の官制改革の背景』(同上).

문명국으로써의 자신감이었다. 이러한 의식의 배경에는 「文獻」의 틀 밖에 있는 주변 여러 민족을 「蠻人」이라고 준별하는⁷⁶⁾ 「華夷思想」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상, 베트남의 「華夷思想」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경우는 동남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토지에 비해 인구가 희박하였다. 따라서 토지(영토) 지배는 紅河 델타를 제외하고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 그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확보, 바꾸어 말하면 「朝貢」 관계는 주변 여러 民族·국가 사이에 일단 성립하고, 영역적 지배는 紅河 델타의 간척이 진행되고 농업 생산이 향상되는 陳朝로 미루어졌다. 그와 동시에 베트남의 「華夷思想」 성립도 黎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트남의 「華夷思想」은, 고대 한반도 국가 및 渤海·일본의 그것과는 형성 과정의 차이가 보인다.

V. 맺음말

이상,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와 베트남 등의 「華夷思想」 양상을 통람하였다. 이는 중심인 「中華」의 왕권 아래로, 주변 지역 수장 및 여러 族·國家를 서열화해 가는 정치 사상이었다. 특히 고대 한반도 국가와 발해·일본에서의 「華夷思想」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중 국내 지배를 관철하고, 영역 확대를 구상·실현하면서 나타났다. 또 왕권의 정당성과 초월적 권능을 顯現하는 상에서도 빠트릴 수 없는 정치 사상이며, 중국 본래의 華夷思想을 모범으로 형성되어 갔다. 따라서 중국 주변의 「華夷思想」은 항상 자신들을 「中國에 對等」으로 위치하면서도, 한정된 지역 속에서 覇者로 되는 세계관이었다.⁷⁷⁾ 특히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華夷思想」은 우선 국가로 성립하고

76) 古田元夫, 1984, 「ベトナム-インドシナの民族的諸相 -エスニシティ論の視点から-」, 『東洋文化』 64.

77) 坪井 注65 前掲論文.

지배 영역의 편성도 완료할 때, 각각의 「華夷思想」에 근거한 지배 질서가 서로 저촉되었다. 본래 개방적이었을 터인 「華夷思想」은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상호 대립을 낳았다. 게다가 불교 등 다른 사상과의 混淆도 진행되어 「華夷思想」 그 자체가 개변·변질을 이루어 갔던 것이다.

[투고일: 2021.11.01, 게재확정일: 2022.12.13.]

역자 부기

이 논문은 저자가 1983년에 공간한 ‘「古代における歴史的世界の形成 - 「中華思想」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世界の再編と民衆意識』, 青木書店’에서 비롯되었다.

『渤海と古代の日本』(2001)의 ‘あとがき’를 보면, 이 논문에 대한 간단한 후기가 있다. 즉 1982년은 日本이 과거 日帝의 華北 ‘侵略’을 ‘進出’, 南京大虐殺을 ‘中國軍의 격한 저항 때문에’ 등으로 교과서 서술을 改竄하여,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된 시기였다. 당시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역사학의 입장에 풀어보고자 本稿를 준비했다고 한다. 또 ‘아시아’라는 무대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개인이 처한 현실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그것을 학자로서 해결해보고자 한 저자의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다. 첫 원고에는 없던 베트남을 後考에서 보완했는데, 여기서 저자의 부지런함도 엿볼 수 있다.

譯者の 입장에서 저자인 酒寄雅志 선생님은 물리적 거리나 연배 등을 볼 때 머나먼 先學이다. 연락에 도움을 주신 신중원 선생님, 일본의 赤羽目匡由・植田喜兵成智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번역 논문을 제출하기 직전, 안타깝게도 酒寄雅志 선생님의 訃告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번역을 허락함은 물론 面識없는 후학의 학문적 성장을 응원해주셨다. 그저 역자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에 죄송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참고문헌】

- 箕敏生, 1989,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國」, 『日本史研究』 317.
- 古田元夫, 1984, 「ベトナム-インドシナの民族的諸相 -エスニシティ論の視点から-」, 『東洋文化』 64.
- 古畑徹, 1995, 「渤海使の文化使節の側面の再検討 -渤海後期の中華意識・對日意識と関連させて-」, 『東洋史論集』 6.
- 關本照夫, 1987, 「東南アジア的王權の構造」, 『現代の社會人類學 3』, 東京大學出版會.
-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岩波書店.
- 堀敏一, 1997, 「中華世界」, 『魏晉南北朝隋唐時代の基本問題』, 汲古書院.
- 金子修一, 1979, 「魏晉より隋唐に至る郊祀・宗廟の制度について」, 『史學雜誌』 88-10.
- 金子修一, 1992, 『大伽倻連盟の興亡と「任那」 -加耶琴だけが残った-』, 吉川弘文館.
- 金子修一, 1992, 「中國皇帝と周邊諸國の秩序」, 『新版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 今泉隆雄, 1991, 「蝦夷の朝貢と饗給」, 『東北古代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那波利貞, 1936, 「中華思想」, 『岩波東洋思潮講座』, 岩波書店.
- 大日方克己, 1990, 「古代における國家と境界」, 『歴史學研究』 613.
- 大平聰, 1989, 「天平期の國家と王權」, 『歴史學研究』 599.
- 大平聰, 1992, 「歴史研究と南島」, 『沖繩研究ノート 一』, 宮城學院女子大學キリスト教文化研究所.
- 桃木至郎, 1982, 「陳朝期ヴェトナムの政治體制に關する基礎的研究」, 『東洋史研究』 41-1.
- 桃木至郎, 1990, 「十一-五世紀の南海交易とヴェトナム」, 『シリーズ世界史への問い 3 移動と交流』, 岩波書店.

- 都出比呂志, 1984, 「農耕社會の形成」, 『講座日本歴史 1 原始・古代 1』, 東京大學出版會.
-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說 -前方後圓墳體制の提唱-」, 『日本史研究』 343.
- 藤原利一郎, 1982, 「黎朝聖宗の官制改革の背景」, 『小野勝年博士頌壽記念 東方學論集』, 龍谷大學東洋史學研究會.
- 藤原利一郎, 1986, 「黎朝聖宗の官制改革」, 『東南アジア史の研究』, 法藏館.
- 藤原利一郎, 1986, 「陳朝時代における國語文學の勃興」, 『東南アジア史の研究』, 法藏館.
- 木村誠, 1992, 「朝鮮における古代國家の形成」, 『新版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 木村誠, 1997, 「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検討」,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 武田幸男, 1980,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点 -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勢力圏の展開過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89, 「牟婁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武田幸男, 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富田健次, 1976, 「ベトナムの民族俗字『字喃』の構造とその淵源」, 『東南アジア研究』 17-1.
- 富澤壽男, 1990, 「王權觀念の原理と諸相」, 『東南アジアの思想』, 弘文堂.
- 濱田耕策, 1978,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 『末松保和博

- 士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 吉川弘文館.
- 濱田耕策, 1978, 「新たに発見された『丹陽・新羅赤城碑』」, 『日本歴史』 365.
- 濱田耕策, 1981, 「新羅の聖徳大王神鐘の中代の王室」, 『洵沫集』 3.
- 濱田耕策, 1983, 「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對日外交 -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る-」, 『學習院史學』 21.
- 濱下武志, 1989, 「東アジア國際體系」, 『講座國際政治 1』, 東京大學出版會.
- 山尾幸久, 1989, 「『日本天皇』と華夷思想」,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 山尾幸久, 1989, 「『任那の調』の實態と性質」,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 森公章, 1986,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七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118(1998, 『古代日本の對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 西嶋定生, 1983, 「東アジア世界と日本史」,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 石母田正, 1973,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日本古代國家論』 第一部, 岩波書店(1989, 『石母田正著作集』 4, 岩波書店).
- 石母田正, 1973, 「天皇と『諸蕃』」, 『日本古代國家論』 第一部, 岩波書店(1989, 『石母田正著作集』 4, 岩波書店).
- 石上英一, 1978,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 石上英一, 1984, 「古代國家と對外關係」, 『講座日本歴史 古代 2』, 東京大學出版會.
- 石上英一, 1987, 「古代東アジア地域と日本」,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 石井正敏, 1974, 「初期日渤交渉における一問題 -新羅征討計畫中止との關連をめぐる-」, 『森克己博士古稀記念史學論集 對外關係と政治文化 1』, 吉川弘文館.

- 石井正敏, 1975, 「日渤交渉における渤海高句麗繼承意識について」, 『大學院研究年報(中央大學)』 4.
- 石井正敏, 1992, 「一〇世紀の國際變動と日宋貿易」, 『新版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 小倉芳彦, 1970, 「裔夷の俘 - 『左傳』の華夷觀念-」,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 小倉芳彦, 1970, 「華夷思想の形成」, 『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 青木書店.
- 狩野久, 1990, 「律令國家と都市」, 『日本古代の國家と都城』, 東京大學出版會.
- 神野志隆光, 1986, 『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 櫻井由躬雄, 1980, 「李朝期(一〇一〇~一二二五)紅河デルタ開拓試論 - デルタ開拓における農學的適應の終末-」, 『東南アジア研究』 18-2.
- 鈴木英夫, 1983, 「『任那の調』の起源と性格」, 『國史學』 119(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 鈴木英夫, 1989, 「最近發見の韓國の古代四碑について」, 『國史學』 139.
-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博士頌壽記念 『日本史學論集』 上, 吉川弘文館.
- 鈴木靖民, 1984,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講座日本歴史 1 原始・古代 1』, 東京大學出版會.
- 鈴木靖民, 1985, 「渤海の首領に關する基礎的研究」,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鈴木靖民, 1985, 「倭の五王の外交と内政 -府官制的秩序の形成-」,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續群書類從完成會.
- 鈴木靖民, 1987, 「南島人の來朝をめぐる基礎的研究」, 『東アジアと日本』 歴史編, 吉川弘文館.
- 鈴木靖民, 1992, 「七世紀東アジアの爭亂と變革」, 『新版古代の日本 2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